

제420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월10일(금)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김상훈 의원·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6)
2.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5)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5)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2)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1)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0)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4)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6)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1)
1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5)
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4)
1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5)
1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29)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3)
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3)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6)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2)
1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2)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6)
2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6)
2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8)
2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4)

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7)
  2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3)
  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1)
  26.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22)
  2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5)
  2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6)
  2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2)
  3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2)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5)
  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1)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9)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5)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3)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1)
  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1)
  4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4)
  41.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9)
  4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1)
  4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5)
  4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45.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
  46. 현안질의
- 

### 상정된 안건

1.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김상훈 의원·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6) ..... 4
2.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5) .... 4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5) ... 4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2) ... 4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1) ... 4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0) ... 4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4) ..... 4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6) ..... 4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1)	4
1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5)	4
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4)	4
1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5)	4
1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29)	5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3)	5
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3)	5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6)	5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2)	5
1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2)	5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6)	5
2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6)	5
2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8)	5
2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4)	5
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7)	5
2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3)	5
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1)	5
26.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22)	5
2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5)	5
2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6)	5
2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2)	5
3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5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2)	5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5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5)	5
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1)	5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9)	5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5)	5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3)	5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1)	5
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1)	5
4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4)	5

41.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9) ....	5
4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1) .....	5
4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5) .....	5
4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	6
45.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 .....	9
46. 현안질의 .....	10

---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임오경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개회 요구에 따른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하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김상훈 의원·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356)
  2.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5)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5)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2)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1)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0)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4)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6)
  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1)
  1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5)
  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4)
  1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5)

1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829)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3)
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3)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6)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42)
1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722)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6)
2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6)
2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8)
2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4)
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7)
2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3)
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1)
26.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22)
2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5)
2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6)
2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2)
3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2)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5)
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1)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9)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5)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3)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1)
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1)
4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4)
41.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9)
4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1)
4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5)

**4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10시05분)

○**위원장 전재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4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건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28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4항까지 국가유산청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문체부제1차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31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6항 양문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체부장관이 홍보매체의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정부광고 시행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문체부로부터 정부광고 홍보매체 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문체부장관의 자료요청권한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매체 선정 배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개정안의 적절, 부당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완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41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전문위원입니다.

제2차관 소관 총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민형배 의원안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시장질서와 공정한 경기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인데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윤덕 의원안은 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총매출액 중 환급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법체계 정비 조문으로 탄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 정연숙 의원안은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 심의와 경기단체 임원의 재심의 및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징계 심의·재심의의 경우 조사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 심의까지 병행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을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고, 연임제한 허용 심의의 경우 외부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 마지막, 진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육성레저스포츠업 등을 정의하고 육상레저스포츠업자는 사업을 등록하고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육상레저스포츠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동시에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체육시설과 레저스포츠시설, 유원시설 등 상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오경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앞에서 이제 동료 위원님들 발언도 하시겠지만 오늘 2025년 문체위 첫 상임위, 여당이 불참한 반쪽 상임위가 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민의 대표가 된 국회의원들이라면 적어도 국회법 제49조와 57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매달 상임위는 두 번, 소위는 세 번 상임위 개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산 관저 앞에서 윤석열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한 시간은 있고 상임위 나올 시간은 없는 것입니까?

특히 윤석열의 불법 계엄 내란 이후 국민들은 엄동설한에 자신들의 일상마저 접어 두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내란 상황에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여당 위원들은 내란의 동조자가 되어 자신들의 직무마저 해태하며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 주셨는데 내란수괴의 사익을 위해 상임위까지 외면하는 여당 위원님들의 행태가 한심하기 짹이 없고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 볼 낯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비록 상임위가 반쪽으로 열리지만 다음번 전체회의에는 여당 위원님들의 상임위 참석을 독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법안소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법안소위의 안건들을 전체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비우신 여당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 혼란으로 망가져 가는 국민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란수괴의 뒤치다꺼리에만 매달리실 겁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임오경……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조계원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조계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여수을 지역의 조계원 위원입니다.

먼저 항공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큰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2·3 윤석열의 내란으로 일상을 잃은 국민들께서는 연말에 항공기 참사로 충격과 비통함에 잠겨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께서는 내란성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 엄동설한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차가운 도로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휘청이고 민생은 무너졌습니다. 관광업계도 비상입니다. 특히 제주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지역의 여행업계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어디 계십니까?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올인한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우리 국민들은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 피의자입니다. 그런 윤석열을 지키려 관저까지 달려가신 김승수 위원님은 내란 선동, 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혐의로 고발까지 당하셨습니다. 같은 문체 위원으로서 부끄럽고 실망스럽기 짹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지키려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가면서 민생과 국민의 삶에 직결된 현안질의에는 왜 참석하지 않으십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투표로 선출된 헌법기관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윤석열의 힘’, ‘내란의 힘’이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사법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과 공멸의 길을 걸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명처럼 국민의 힘이 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

죄 하십시오.

국민의힘 문체위 위원 여러분,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민생을 살리고 위기에 직면한 K-관광, K-콘텐츠, K-컬처를 살리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시킬 방안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현안질의가 있거든요. 이 법안들의 대체토론이 아니면 현안질의 때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결할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문제 가 좀 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더 이상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44건의 법률안은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45.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16분)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월 21일 실시 예정인 현안질의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129조제1항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증인은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 증인 출석과 관련해 가지고 이기현 위원님께서 증인 신청을 해주셨는데, 배경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이기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 문체위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합니다. 특히 내란 상태에서 이 내란 상황이 신속하게 정리되는 것이 국민들의 큰 여망입니다. 정말 잠 못 드는 국민들의 이런 고통 빨리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그 일을 해야 되고요, 저희 문체위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문체위는 지난 비상계엄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으신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국회에서 KTV의 김건희 황제관람 또 소록도 방문 등 김건희 발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에 출석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입니다.

최재혁은 KTV 김건희 황제관람을 기획한 핵심 관계자이지만 국감에 끝내 불출석해서

황제관람의 실체를 감추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생중계 당시 현장에 최재혁이 배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내란의 선전, 내란에 가담 여부 또한 확인돼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을 21일 전체회의 증인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위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46. 현안질의

(10시19분)

○위원장 전재수 의사일정 제46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순서에 따라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 장관님은 윤석열의 장관입니까, 대한민국의 장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으니까 이 내각의 장관이고 대한민국의 장관이고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윤석열은 내란수괴 혐의로 탄핵심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윤석열의 장관으로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 헌법적인 문제나 재판 과정의 모든 일이 끝나면 하여간 저도 같이 소멸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런 기한까지는 제가 장관 자리를 지금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계원 위원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과 포고령 그것에 대해서 지난 현안질의에서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도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인정을, 끝까지 본인이 판단을 못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그 문제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같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문제는 이 시기에 맞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아직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국헌 문란 행위다, 지난 12·3 계엄 당시의 비상계엄과 그리고 계엄 포고령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대한 침탈 그리고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한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위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위헌적 행위가 바로 내란 행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란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요. 그런 문제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 그런 것을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화면 좀 띠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로 인해서 현재 구속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그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의 수괴는 아직까지도 구속은커녕 관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본인은, 윤석열 본인이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스스로 부인하고 관저에 꼭꼭 숨어서 공정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제 생각이 개인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법적인 절차에 맞추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지금 따르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체포영장이 그러면 불법적인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그것까지 저는 잘…… 뉴스에서 하도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요.

○조계원 위원 한 나라의 장관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인촌 장관님은 더 이상 내란수괴 윤석열의 장관임을 자처할 필요도 없고 자처해서도 안 되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장관, 국민의 장관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저희가 당면 과제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빨리 일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분야도 그렇고 저희 문화·예술 쪽도 그렇고 하여간 전반적으로 조속히 안정적으로 일을 진행시켜야 될 일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런 일을 검토하고 처리해야 되는 일도 지금은 정말 시간이 없고 바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난 12월 31일 날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그날 국무회의에서 현법재판관 2명은 임명하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보류하였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논의는 없었고요. 그때는 아마 대행께서 결정을 하셔서, 특히 모두 말 할 때 발표를 하셨고요. 물론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조계원 위원 장관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왜냐하면 이미 다 발표를 한 상황이고, 발표하면서 언론에 바로 나갔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황을 잘 수습하는 쪽으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수습하는 쪽이라면 대통령대행의, 최상목 대행의 입장을 따랐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바꿀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미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국무위원들이 그런 문제로 힘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힘을 합쳐서 이 정국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은 그와 관련해서, 2명의 재판관은 임명하고 1명은 보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현재 상황으로는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계원 위원 잘하셨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1명을 임명하지 않고…… 사실상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명만 임명하고 본인이 권한도 없는, 마흔여섯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는데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정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 상황을 잘 진정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도 장관님이 국정에 연륜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번의 내란 사태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좀 옳고 정의로운 판단을, 또 국무위원 중에서는 최연장자기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게 하길 바랐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날 국무회의에서 소위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은 권한이 없다면서 소극적으로, 소극적이라고 그러면서 가장 적극적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거부권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발언하셨습니까? 찬성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때는 물론 재의요구를 하는 쪽으로 저희 국무위원들 전체적으로 의견은 모아졌고요.

○조계원 위원 전체적으로 100% 다 찬성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을 내신 분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법적인 문제, 삼권분립에 관한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있다 그런 의미로 그날 재의요구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 역시 또 장관님께 실망하는 부분입니다.

삼권분립은 이미 지난 박근혜 특검에서 박근혜에 대한 특검을 임명할 때 야당에서 추천했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당시에는 뭐……

○조계원 위원 모르셨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이미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것을 다시 소환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조계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야당 추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주장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주장에 동의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 당시에 동의를 한 거지요.

○조계원 위원 지금도 계속 동의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재의요구로 국회에 와서 다시 또 표결을 다 하셨잖아요. 이번에 또 다시 발의하신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계원 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발의된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직 제가 내용은…… 조금 바뀌어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하도 쓸데없는 거부권을 남발하고 그 상황을, 내란죄에 대해 특검으로 조사하는 것을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는 그런 국민의 염원을 받아들여서 지금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했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이 1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정도면 국무회의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포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저희들 입장보다도 오히려 여야가 잘 합의를 해 주셔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조계원 위원 그날 국무회의에서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다면서요. 야당만 추천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 원인도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까지 받아들인 안을 냈으면 유인촌 장관님께서 이번에는 바로 공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 발의된 안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현안질의 때 제가 인사권은 최대한 소극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사표 수리되지는 않았지만 사표 냈고 그리고 지난 1월 6일에 영진위원 6인 선임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런데 분명히 12월 확대기관장회의에서 인사권 신속하게 행사하겠다라는 말 안 했다고 했는데 현실화가 됐어요. 그런데 영화계에서 영진위원 철회하라 촉구하는 성명서 냈습니다.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봤습니다.

○강유정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이 안 됐다는 이유 아닌가요?

○강유정 위원 본인들, 본인들이라니까 한 사람 같은데 19개 영화단체, 19개입니다. 19개 영화단체에서 추천 인사를 올렸지만 이 6인 중에 1명도 포함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뭐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그것을 꼭 이유로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그동안의 그 과정이 중요하고요.

○강유정 위원 그러면 투명하게 밝혀 주시면 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게 추천 접수 현황이에요. 추천 접수 현황이고 여기에서 6인이 됐는데, 추천 단체 및 개별 영화인이라고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영화 관련 단체, 영화 관련 단체, 극장, 영화 관련 단체.

자, 영화 관련 단체라고 써 놓으면요 이것은 아무 말도 안 한 거나 똑같지요. 추천인, 추천 단체 또는 개별 영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영화 관련 단체로 써 놨으면 아무런 추천 근거가 없다는 것과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인연대도 정확하게 어느 단체가 추천했는지 알려 달라고 했는데 그것 왜 안 보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강유정 위원 인사권을 하시면서 왜 모르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게 자천도 있고 타천도 있고 지금은 다 열려 있어요.

○강유정 위원 그러니까 당당하시면 그것을 밝히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고요.

○강유정 위원 다 알 수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명단을 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강유정 위원 용호성 1차관님, 왜 이것 안 밝히세요? 왜 이것 추천 단체 및 개별 영화인 전부 다 못 밝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해관계자들이 빠진 것 같고요.

○강유정 위원 이해관계자,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영화인연대에서 계엄에 반대하는 성명도 냈고요. 계엄에 반대하는 성명 냈으니까 19개 단체 다 배제하고 거기는 영화진흥위원회 안 뽑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강유정 위원 그것을 증명하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증명을 하는 건 왜냐하면……

○강유정 위원 2017년에 이준동 대표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추천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촬영감독은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의 추천으로 임명됐다라고 추천 단체 밝혔어요. 다 밝혔는데 왜 유인촌 문체부장관 시절에만 못 밝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거 나중에 밝혀 드릴게요, 그러면.

○강유정 위원 밝혀 달라, 밝혀 달라 몇 번 얘기했는데 계속 안 밝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저는 그 내용을……

○강유정 위원 자료로 일단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6인 추천된 분 보니까 영화계 주요 직능단체 19개 다 배제돼 있습니다. 그 19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단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배우조합, 영화감독조합,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독립영화협회, 독립애니메이션협회, 전부 다 빠졌어요. 여기에서 추천한 사람 다 빠지고 영화관 관련자는 둘이나 들어가 있고, 심지어 회계법인 출신 인사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영발기금을 자의적으로 없애 놓더니 영발기금 고갈 문제 해결하겠다고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계의 진흥을 위한 위원회 위원에다가 회계사 집어넣어 놨어요. 이것 자기 부정 아닙니까?

빨리 이 기금 문제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 기금 문제 해결도 안 하고 법부터, 시행령부터 없애 버리더니 여기에다 또 6명밖에 안 되는 영화진흥위원회 자리에다가 회계사 갖다가 꽂았습니다. 정말 저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임 위원 6인 중에 독립영화, 영화제…… 장관님께서 계속 영화제 걱정하지 마라, 독립영화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6인 중 1명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강유정 위원 아니요, 이해 안 하셔도 좋고요. 이것 왜 그렇게 뽑았는지 증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 말씀을 조금 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서 보조금 지급하는 일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강유정 위원 이해관계자들, 그렇게 따지면 문체부 이해관계자인 회계사 들어가 있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 6인은 오히려 다 객관적으로 영화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화 관계자들입니다. 그분들이……

○강유정 위원 아니,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인을 위한 민간기구인데 왜 영화인이 거기에서 배제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분들이 다 영화인들입니다.

○강유정 위원 회계사가 영화인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회계사 한 분이에요. 그분은 왜냐하면……

○강유정 위원 6인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적습니까? 그게 궤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회계사 한 분도 영화 관련 일을 하신 분이에요.

○강유정 위원 겨우 6명이 영화인을 대표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진흥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회계사가 영화인이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영발기금 없애 놓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난번 위원 중에 자기가 속한 단체의 십사에서 돈 주고 자기가 거기에서 돈…… 징계 다 받았잖아요.

○강유정 위원 그래서 감사도 하고 별별 억압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지 않습니다.

○강유정 위원 다른 독립영화, 기관장 하거나 다른 독립영화 감독이라거나 다른 독립영화 제작사 들어가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 사람들 들어가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강유정 위원 벌써부터 블랙리스트…… 아직도 각성이 안 됐나 본데요, 지금도 계속 블랙리스트 쓰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은 오히려 객관적으로…… 자꾸 블랙리스트를 얘기 하시면 안 되십니다.

○강유정 위원 독립영화 얘기하면 그분들이 이해당사자니 뭐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유정 위원 이것 다 속기록에 남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 말씀이 블랙리스트 행위인지 아닌지는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거고요.

일단 이 6인에 대해서 누가 추천했는지 명확하게 사유를 해서 보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질문이 조금 남아서 다음 질문에 이어서 일부 시간 쓰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오늘 저는 정부조직법상 문체부장관이 해야 될 역할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문체부장관의 역할을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정부조직법 36조지요, 거기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말씀해 주시지요.

○민형배 위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12월 10일이었지요, 12·3 있고 난 다음에 정부 입장을 한번 발표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 발표 때문에 여러 곳에서 정말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하여간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민형배 위원 아니, 그게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듯한 그런 윤석열 입장에서 발표를 하셔 가지고 혼이 많이 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정부의 입장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정부 입장으로.

그런데 왜 요즘은 이렇게 이 내란이고…… 정부가 정말 국민들께 상황이 이렇습니다,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왜 한 번도 안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원래 저는 사실 정부조직법상 대변인으로 돼 있어서 아마 특별한 경우에나 한 번씩 했어요. 그동안에는 한 적이……

○민형배 위원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 그때는 왜 하셨어요? 그때는 하셨고 지금은 안 하시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그때가 상황이 너무 위중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더 위중하잖아요, 그때는 진압이 좀 된 상태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여쭐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민형배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운영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현재 대행께서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시지요? 정부대변인 역할은 장관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때 한 달 전에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국민들께서 궁금한 게 너무 많고 논란이 많은데 왜 정부 입장이 없지?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것을 발표할 때는 신속하게 하시더니 왜 없지?

우선요 지금 대한민국 내란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내란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지속 중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민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예요? 아주 평온한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평온하다고 할 수는 없지요.

○민형배 위원 그러면 윤석열, 내란수괴 맞습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그건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국무위원이, 정부대변인이 그 판단을 못 하신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정부 입장에서 지금……

○민형배 위원 정부 입장에서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정부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대변인 입장으로는 요청이 있을 때는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안 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잖아요. 국민을 대신해서 묻잖아요. 내란수괴 맞지요, 내란 우두머리? 지금 형사사법체계 내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어제 본회의에서도 보셨겠지만 다 내란범으로 보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재판에서 결정을 해 주겠지요.

○민형배 위원 아니, 그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혐의도 부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혐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이상을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국정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은 우선 국민들 안정시키고요.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안정시켜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우선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부처에서 하는, 이해관계자들과……

○민형배 위원 저것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국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내란을 끝내는 겁니다. 내란 종식,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빨리 안정이 돼야 되겠지요.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란을 끝내야지 안정이 된다고요. 거꾸로 말씀하지 마시고, 안정이 돼야 내란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란이 끝나야 안정이 된다.

저것 봐 보세요. 지금 저 자료 한번 봐 보세요. 윤석열 체포영장만 발부했는데도 환율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또 봐 보세요.

지금요 국민들이 내란성 스트레스,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것 아닙니까? 저 커트를 봐 보십시오. 오른쪽 커트 봐 보시면 ‘잡혀 갔나?’, 좀 확대해 보면 저게 다 드러나는데 누워서 잡혀 갔나 보고 있는 거예요.

내란을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국민으로부터 빨리 격리시켜서 체포·구금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지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고개를 끄덕임)

○민형배 위원 아니, 고개만 끄덕끄덕하실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말씀 한번 해 보시라고요.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는 정부 입장 그리고 그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국민들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정부 입장이어도 그렇고요. 또 지금 물론 현 상황이 이렇게는 돼 있지만 현재 대통령 신분을 갖고 계신 거고.....

○민형배 위원 아니, 대통령 신분이 있나 없나 제가 그것 물은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각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세요? 정부 입장이 아니고 윤석열 입장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생각은 다르다고 봐야겠지요. 어떻게 같은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민형배 위원 생각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생각을 정부 입장에서 말씀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람마다 각자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현재의 입장에서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민형배 위원 정부대변인으로서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민형배 위원 그러면 내란범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 그것까지도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내란범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정말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그래서 정부 입장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뭐, 그렇지는 않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부처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정 안정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내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란범이 체포가 안 돼서 저라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방 다 드러나잖아요, 수치로도 다 확인이 되고. 왜 그것을 부인하려고 그러세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공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내란수괴 윤석열을 격리·체포·구금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저는 현재가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탄핵재판을 해야 되는데, 동의하시지요? 신속하게 끝내야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현재가 하겠지요.

○민형배 위원 아니, 국정 안정을 위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현재가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민형배 위원 정부대변인이라,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대변인 입장에서 현재의 재판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냐 아니면 질질 끌면 좋겠냐를 여쭙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빨리 끝내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빨리 끝내는 건가요? 제 의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민형배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정부의 바람직한 지향이 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판사님들이고, 알아서 정당한 판결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아, 참……

그러면요 대통령경호처가 정상적인 영장 집행을 막고 있어요. 위법으로 보이십니까, 합법으로 보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민형배 위원 아니, 정부대변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정부대변인 입장에서. 정부에서 보기에 지금 그런 행위가 위법하게 보이세요, 적법하게 보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 판단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아니, 정부대변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보시라고요. 국민들이 지금 묻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은 대변인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민형배 위원 아이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말……

○민형배 위원 계엄 옹호하는 것 하셨잖아요, 그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옹호한 호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에 게……

○민형배 위원 옹호한 호소문이 아니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거라고……

○민형배 위원 아니, 전문을 읽어 드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거기 보면 야당에게 법치주의와 정치적 자제까지 요청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도 호소한 거지요.

○민형배 위원 정부대변인이 야당에게,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란을 끝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야당에게 자제를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란을 계속하자는 거였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릴게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정부대변인으로서 아낌없이 하시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혹은 정부조직 중의 일부가 하고 있는 영장 집행을 막는 것과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대변인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국정이 좀 혼란스럽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대변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민형배 위원 대변인 역할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국무회의 때 의논을 해서 정부 입장으로 발표할 일이 생기면 다시 대변인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 국무회의에서 의논이 안 되면 대변인이 아무 말 못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대변인 자격이 있다고 해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민형배 위원 좋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시다, 정부대변인이시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정부대변인으로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윤석열이 하고 있는 지금 상황, 저 행태에 대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대변인으로서 권유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대로 있으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면 빨리 법의 집행에 따르라고 하시겠어요? 법을 지키라고 하시겠어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겠어요? 국무위원으로서 말씀을 하신다면, 정부대변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지금은 저희들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민형배 위원 아니, 하신다면,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가정으로 제가 여기서……

○민형배 위원 아니, 소통이 안 되지요.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하고 소통하면 안 되지요,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민형배 위원 아니, 연결이 안 되니까 별개로 놓고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민형배 위원 아니, 정부대변인으로서 또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국무위원, 대변인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관저에서 철조망 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 윤석열 대통령께 권유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안 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지금은……

○민형배 위원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입장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형배 위원 내란을 인정하고 계엄을 인정하고 내란을 옹호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지금 저의 그런 입장을 자꾸……

○민형배 위원 아니, 온 국민이 지금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 국무회의 때 최상목 대행이,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했는데 2명은 임명을 하고 1명은 임명을 안 했어요. 잘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것은 대행이 결정을 하셔서 발표를 하신 거고 또 이미 발표한 다음의 상황으로는 그 문제를 갖고 국무위원들이 더 이상 활가활부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가자 그런 맥락이었어요.

○민형배 위원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특히 대변인까지도 이렇게 입장이 없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정리된 정부 입장이 없으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말씀 좀 해 주시라고요. 그걸 좀 계속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연결돼 있는 그런 정책적인 업을……

○민형배 위원 지금 이 내란 상황 때문에 실생활이 엉망이잖아요, 실생활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그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각 부처마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란을 끝내야지 그게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 제가 어떻게 끝내겠습니까, 그것을?

○민형배 위원 아니, 정부 입장을 좀 말씀해 보시라는데 그것도 말씀 못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하여간 뭐……

---

○위원장 전재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을 예상하고 책을 한 권 가져와 봤는데요.

(책을 들어 보이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인데 장관님 이 책 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책 혹시 읽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못 읽어 봤습니다.

○박수현 위원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표지에 쓰여 있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 엄청난 절대악의 현상은 평범성, 즉 생각하기의 무능, 말하기의 무능, 판단하기의 무능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1961년 12월 나치 친위대 소속이었던 아이히만에 대한 전범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포로수용소로 데려오는 수송 책임자였는데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한 것이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유죄를 선고받고 최종적으로 교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재판을 지켜봤던 20세기의 저명한 독일의 정치철학자인, 이 책의 저자인 한나 아렌트가 바로 이 재판을 지켜보고 내린 결론, 그렇게 내린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에 부역한 자들의 사유 불능성이라는 무지함이 절대악의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무능이 바로 아이히만의 죄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 문제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유인촌 장관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명심하시고 국무회의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업무보고입니다. 국무회의는 아니고요.

○박수현 위원 예, 업무보고지요. 그 말씀 명심하시고 업무보고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권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가증스러운 위선의 입과 거짓의 혀로 무슨 말을 늘어놓더라도 비상계엄은 국민이 생방송 지켜보듯이 지켜보신 위헌이고 내란이었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의 눈들이 그 참담한 현장을 환하게 비추어서 내란과 폭동의 그 현실을 국민 앞에 그대로 보여 주었는데도 윤석열 자신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당 또 나아가 심지어는 몇몇 국무위원들이 내란을 이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통곡하게 그리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의 유력 언론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 ‘정당하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 기사의 제목입니다. 또 미국의 한 언론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진 대통령이 일으킨 세계 최초의 내란’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듯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과 법적 처벌이 확정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란의 종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디테일에 잠복한 악마를 불러내서 탄핵과 내란 수사의 절차를 더디게 하는 모든 시도가 내란의 연속적인 과정에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께서는 내란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못 하겠다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셨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해 봅니다. 12월 3일 밤의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의 1차 내란이라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하고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2차 내란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또한 한덕수 대행 탄핵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불완전한 상태로 둑어 두고자 하는 그런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당이 주도하는 것, 지금의 이 현실이 3차 내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선택적 임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정상성을 지연시키고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반란을 방임함으로써 3차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유인촌 장관께서는 정부대변인으로서 정부 입장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던 것, 그래서 지난 상임위에서 질타를 받으셨는데 이 역시 아이히만이 항변했던 대로 ‘저는 정부대변인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아이히만의 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범재판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장관의 답변 태도와 내용 역시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 말하기 무능, 판단하기 무능, 종합적으로 사유 불능성, 이것이 절대악의 근원이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당이 이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장관께서 이 회의에 출석하신 점과 그리고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선택적으로 임명한 사실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간에 논쟁이 있었다고 언론에 나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중에 유인촌 장관께서는 이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발언하셨다고 언론에 난 걸 봤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장관이 ‘내가 장관직을 그만두고 민간인이 되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하듯이 지금은 그렇게 평상적인 시기가 아니고 국민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장관께서는 각 부처들이 정상적으로 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각 부처가 자신의 업무를 다하는 것이, 그것이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P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지금 문체부장관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관광업계 피해 현황이 있을 거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인데 제가 이런 걸 자료를 요청했어요. 단체 및 개인 여행 취소 건수 및 총인원 수가 얼마냐, 자료를 내 봐라 그랬더니 ‘해당 자료는 우리 부가 파악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줄이 답변입니다.

두 번째, 여행 취소로 인한 환불 요구 금액 및 실제 지급 금액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역시 ‘해당 자료는 우리 부가 파악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지역별·업종별 관광업계 피해 규모 통계를 줘 봐라 그랬더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저 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행업, 정부의 안전 홍보 등으로 안정화되고 있음. 다만 내년 상반기 신규 예약 등 모객이 부진한 상황임’, 도대체 앞뒤가 이렇게 다른 이런 답변을 국회의원에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여튼 전부 다 그런 답변이에요, 안전 홍보 등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부에서 어떤 것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이 답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위원님……

○박수현 위원 장관님, 잠시만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표를 보면 2023년과 2024년 12월의 공연 예매 현황인데요. 동 기간을 비교했을 때 총 티켓 예매 수는 29만 건 이상 그리고 총 티켓 예매액은 약 190억 원이 감소한 것, 이렇게 파악이 일단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관기관에 비상계엄 이후 문체부와 논의한 적이 있는가라고 소속기관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계엄령 선포 이후 문체부 내부 논의 및 회의 현황을 내 봐라 그랬더니 ‘자료 없음’, 딱 네 글자 보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안정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장관께서는 ‘지금 모든 정부부처가 이 상황에서 이 정국을, 시국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의 어려움, 특히 관광 분야는 저희들이 자료나 내지는 그런 통계 때문에 많이 의논을 해도 업계에서는 가능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금 계속 취합이 되니까 나중에 충분한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몇 % 정도 증감했다 이런 정도의 자료로 만들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 문화예술계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전체 각 협·단체장들 및 관계자들과 다 회의를 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제가.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그 전에 혹시 이렇게 자료가 간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관한 것도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현재 계속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방송·영화 쪽 관계자들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또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강유정 위원 예.

제가 질의한 이후에 담당 과인 영상콘텐츠산업과에 영진위원 추천 단체 제출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거든요. 장관이 알겠다고 대답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그런데 위원 선정 이유만 준다고 한 거다.....

제가 분명히 추천 단체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선정 이유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장관께서 말한 게 선정 이유만 해당되니까 그것만 주겠다고 지금 또 취사선택해서 자료를 보낸다고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강유정 위원 당장 준다 못 준다가 아니라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21일 날 상임위 때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보완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 무슨 말입니까? 아까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그러니까 그.....

○강유정 위원 추천 단체와 선정 이유 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말을 금세 좀 바꿔 가지고 이유만 주겠다, 이렇게 취사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강유정 위원 앞의 선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추천 단체가 명기되어 있었고. 제가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추천 단체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선정 이유도 달라.....

제가 무리한 요구하는 겁니까? 6명을 골랐어요, 17명이 신청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고른 쪽에서는 추천 단체가 누구였고 왜 골랐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주시는 게 합당한 겁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러니까 오늘 상임위 끝나고요.

○강유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출 요구 다시 한번 제가 확답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장관님, 가능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지금 실무자들이 다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 끝나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을 다 회의를 소집해서 정리해서 다음번 상임위에 보실 수 있도록 그 전에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민형배 위원 예.

위원장님, 문체부장관께서 정부대변인인데 지금 답변하는 태도로 보면 아예 정부 입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않을 텐데요.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너무 궁금해해요. 그래서 장관께 축구를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해라, 정부 입장이 뭐냐라고 물으면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아무도 윤석열을 실질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직무도 정지돼 있는 상태지만.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처벌받기 전에 위법·위헌에 대한, 직과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기 전에 그냥 형식적인 그런 지위에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는게. 그러면 정부하고 대통령이 분리돼 있어야 맞거든요, 더더군다나 직무가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이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안 하면 이것 되겠습니까?

저는 계속 저렇게 답을 안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진짜 윤석열의 지금 이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분명하게 자기 입장은, 정부 입장은 특히 이곳 상임위에서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축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민형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취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김재원 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국민의 삶과,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다루는 그런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가 1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당 위원님들께서 전원 불참하신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특히 여행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잠시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티메프 정산 문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불안 심리로 인해서 공연·행사 등등 전부 취소되고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内外국인 여행 수요가 전부 다 급감하면서 다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영화계에서는 2025년 정부 예산 의결 과정에서 폐지된 영화관람료 입장권 부과금 이런 시급한 안건도 있습니다. 독립영화, 예술영화, 영학교육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었던 만큼 하루속히 법안소위를 통해서 복원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상임위원회 전체를 불참하시니 과연 차주에 예정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가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 모든 활동을 정말 간절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의 상임위 불참이 국민이 처한 어려움과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향후 상임위 일정에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국민을 위한 정책 및 입법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아울러 여당과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특히 관광은 지금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국 우선주의로 흐르고 있는 세계 경제 흐름 안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한 축입니다. 이 부분 염중하게 지금 상황을 인식하시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장관, 꼭 유념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위원님들은 향후 상임위 일정에 반드시 참석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 입법 논의에 반드시 참여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예종 김대진 총장, 너무 안 보이셔서 저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재수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지난 12·3 계엄 발령 시에 학생들을 학교 바깥으로, 계엄의 차가운 밤거리에 내몰 것에 대해서 한예종에 큰 질타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예.

○**김재원 위원** 그런데 연이어서 문제가 터지면 안 되는 건데 지난해 12월 29일 날 사이버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이 입은 피해 규모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1만 8000명의 개인정보가 탈취됐습니다.

○**김재원 위원** 재학생, 졸업생, 휴학생 그리고 복학생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1만 8690건입니다.

PPT 좀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일 뒤인 31일 날 한예종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보시면 홈페이지 조회 화면이고요. 그리고 단체문자 이렇게만 보냈습니다.

사과문 1장으로 끝날 문제입니까, 이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학생들이 자기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유출됐는지에 굉장히 궁금한 면이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첨부했는데 지금 저 화면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김재원 위원** 아니, 그런 후속 조치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지요. 내 개인정보를 털렸다는 데 그것 기분 안 나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루고 있어요. 엄청난 피해입니다. 얼마나 엄중한 문제인지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과문에 이어서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이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지금으로서는……

○**김재원 위원** 보안 담당자나 아니면 총장이라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2차 피해를 막는 것을 지금으로서는 최선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여러 가지 명의도용 차단시스템들을 안내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 주고 있고, 최대한도로 학생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 말씀은 초가삼간 다 태워 버린 다음에 그러시면 뭐 하냐는 말씀입니다. 원천적으로 이런 것들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게 총장의 역할이고 책임 아닙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자료에 의해서 저도 인지하게 돼서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한 400건의 공격 시도가 있었는데 그걸……

○**김재원 위원** 아니, 애석하게 생각하기 이전에 총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예, 지금 그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김재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방호벽으로 다 그것이 차단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방호벽으로 할 수 없는 차원의 공격이 들어온 것 같아서 당장 시급한 것은 기능이 확실한, 첨단 방법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호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책임을 느낍니다. 학교의 책임자로서 굉장히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고 학생들에게 또다시 한번 이런 미안한 일이 생기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재원 위원** 왜 진작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예산 평계 대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그런 방호벽을 만들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예산을 마련해서 많은 다양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호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향후에 앞서 있었던 그러한 책임들에 대해서도 확실히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잘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장관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원인이 장관께 있는 거지요? 예산이 모자란다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뭐…… 예.

○**김재원 위원** 한예종은 기관에 속한 학교입니다. 기관 학교인 만큼 학교 예산 챙겨야 되는데, 지금 사이버보안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얘기 들은 거로는 학교에 문마다 자동 개폐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밤에 예술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거기를 누군가가 지켜야만 합니다, 문을.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학생들한테서 들어옵니다, 학생들한테서.

더군다나 공연예술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공연이 공연예술을 하기 위한 마지막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연 예산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일어났다고 해서 공연 없애라 그래 갖고 그때 몇억 없애고 그리고 지금까지 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어디 가서 발표를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예술인들은 예술창작 과정에서 당연히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혹시 한예종을

이념의 잣대로 ‘천덕꾸러기로 만들자’, ‘얘네들은 좀 진보적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글쎄요.

○김재원 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장관께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공평하게 하는 게 장관의 역할이 아닙니까?

문체부는 마지막 예술의 보루, 여기는 상업적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예술의 끝을 봐야 됩니다. 이 보루인 한예종, 독립 예술기관으로 외부 법인으로 방치하거나 그러지 말고 예산 잘 챙기셔서 예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요즘 갑자기 한예종 문제가 자꾸 여러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 30년쯤 됐기 때문에 한예종은 이미 충분히 예술학교로서의 어떤 권위와…… 다 있습니다. 잘 돼 있고요. 현재는……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독립 기관으로 지금 그렇게 해 갖고 예산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산을 왜 우리가 안 줍니까? 예산은 국회에서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안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재원 위원 챙기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김재원 위원 국회에서 챙길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예종은……

○김재원 위원 챙길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잘 챙겨 주십시오.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나와 주십시오.

김효재 이사장, 제가 오늘 왜 오시라고 했는지 아시겠지요?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요청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질의 요청서는 받았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한국언론재단. 여전히 편협하고 불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PPT 주시지요.

지난 13일 날 ‘탄핵의 부당성과 부정선거의 해부’라는 행사는 정치 행사입니까? 정치적 성격 행사입니까, 아닙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처음에는 제목이 저렇게 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정치적인 행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상세한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제출한 자료 지금 보이는 데 따르면 ‘탄핵의 부당성과 부정선거의 해부’ 행사는 대관 신청 시에 주최 측에서 작성한 행사명이고 이후에 행사계획서로 확인을 해 보니까 행사명을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사명이 바뀌어서 팬찮다는 의미 같은데 변경된 행사명은 무엇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행사 주최자들에게 우리는 정치적인 발언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것 제목을 보세요. 지금 PPT의 제목 보세요. ‘계엄 선포가 내란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고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는 학술적인 회의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지난 9월 20일 날 언론진흥재단에 본 위원이 왜 찾아갔었습니까? 그때 제가 좋게 얘기하고 나왔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공정하게, 편협하게 하지 말고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 주고 세워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시민사회 원로들의 시국선언을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때는 기자회견문에 명백하게 정치적인 발언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취소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면밀히 관찰을 하더니, 시국선언은 정치 행사라고 그래서 취소하더니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그런 정치 행사는 허용을 합니까? 왜 이번에는 제대로 안 봤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희 담당자가……

○김재원 위원 은근슬쩍 그 한 가지 평계로,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한 학술행사인지 알았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쯤 되면 여전히 언론진흥재단이 편협하고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진흥재단장으로서 이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경고를 하면서 제언을 합니다.

언론진흥재단은 행사 성격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멈추고……

○위원장대리 임오경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재원 위원 진보든 보수든 간에 누구나 프레스센터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언론진흥재단, 본 위원에게 행사 대관 승인지침 개정 비롯한 개선안 보고해 주시고요. 이사장은 이제 사퇴하십시오, 그냥.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문석 위원 범죄집단 조선일보 1월 7일, 1월 8일 32면 광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국가통치권을 행사하시라! 부정선거 국회의 불법탄핵은 원천 무효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 두 가지 광고가 범죄집단 조선일보 1월 7일, 1월 8일 32면 광고입니다.

장관께 묻습니다.

‘마약을 제조하라, 마약을 살포하라’ 이런 광고를 실으면 문화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양문석 위원 말이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폭행을 모의하라, 폭행을 실행하라’ 이런 광고가 실리면 문화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못 신게 해야 되는 거지요.

○양문석 위원 못 신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럼요, 그런 광고를 어떻게 신겠습니까?

○양문석 위원 ‘살인을 모의하고 살인 집행을 실행하라’ 이런 광고 실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안 되지요.

○양문석 위원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안 되지요.

○양문석 위원 12·3 계엄 포고령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전에 봤습니다.

○양문석 위원 지난번에 제가 강력하게 실무진들에게도 포고령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고령 3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것 광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광고를 누가 했나요?

○양문석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그 광고 자체를,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제가 방금 읽어드렸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령 선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포고령 1·2·3·4·5호, ‘계엄법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단한다’가 마약을 살포하라, 폭행하라, 살인을 하라라는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좌파 편에서 불법재판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재명 일당의 반란으로 헌정이 무너졌다’, ‘검찰, 경찰, 좌파 언론이 한 패거리가 되어 국가적 반란에 가담하고 있다’, 이런 광고가 실리면 문화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그 광고에 대한 근원을 따져 봐야 되겠지요.

○양문석 위원 장관님, 마약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건 안 됩니다, 하여간.

○양문석 위원 폭력이든 살인이든 국가, 헌법기관이든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면 다를 바 없지요? 잘못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런데 그것을 수사기관에서 광고를 했습니까?

○양문석 위원 잠깐만요.

조선일보 지면에 이 광고가 떴다고요. 조선일보 1월 7일, 1월 8일 연이틀 이러한 광고를

32면에 했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조선일보 광고입니다. 조선일보 지면에 올라온 광고입니다. 이게 조선일보 지면에 올라온 광고입니다.

광고, 문화부 관할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가 정부광고를 하고 있지요.

○양문석 위원 신문법, 표시·광고법 문화부 관할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신문법,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표시·광고법도 문화부 관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부광고를 주로 하고 있고 민간에서 하는 광고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지요.

○양문석 위원 장관님, 실행의 영역이 아니고요. 관리감독과 집행의 영역을 계속해서 섞지 마세요. 문화부가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형법 87조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내란 폭동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선전, 선동하는 것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그게 조선일보 기사로 쓴 게 아니지요.

○양문석 위원 조선일보 광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광고. 이것 어디에서 낸 광고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양문석 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정부광고는 아니잖아요.

○양문석 위원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한국의 일간지로 등록되어 있는 찌라시 조선일보가 여전히 법적 지위는 일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고를 버젓이 돈을 받고 계재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 제재를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신문법 1조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문법, 문화부가 관할하는 영역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거기에는 기사든 광고든 정부광고든 정부 공지든 이 모든 것들이 신문입니다. 신문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언론 자유의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근본적으로 배신한 조선일보, 범죄집단 조선일보, 찌라시 조선일보의 행태에 대해서 문화부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표시·광고법, 여전히 이 영역도 문화부 관할입니다. 3조 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걸 말한다. 3조 4호, 객관적 근거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걸 말한다.

(임오경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나하나, 광고법…… 문화부가 관할하고 문화부가 통제하고 문화부가 진통해야 되는 영역에 있어서 곳곳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조 허위, 과장 금지. 9조 명예, 신용 훼손 금지. 12조 선정, 폭력 표현 금지. 이 모든 것들을, 문화부가 이런 광고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문화부의 혼을 담아 온 힘을 다해서 국정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문광고윤리강령 읽어 드릴게요.

'제1조 진실성, 신문광고는 진실하여야 하며 모호하거나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신뢰성, 독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법규 준수, 신문광고는 관계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사회적 책임,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쳐서는 안 되며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도 안 된다'가 신문광고윤리강령입니다. 이 또한 문화부 소관의 법령이고 윤리강령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답변을 좀 드릴까요?

○양문석 위원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양 위원님께서 언론학 박사시니까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표시·광고법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이라기보단 공정위 소관으로 돼 있고요, 현재.

또 사실은 물론 언론의, 신문법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할을 하지만 말씀대로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것을 제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역시 표현의 자유 얘기 나오고 언론을 또 어떻게 한다 그러고, 언론이 하는 일에 대한 이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문석 위원 장관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요 허위사실, 가짜뉴스, 거짓말에 대한 살포의 자유가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한 논평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무서우면 장관 하지 마셔야 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잘 알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런 게 무서우면 문화부가 언론과 관련해서, 신문과 관련해서, 광고와 관련해서 또는 영상 표현과 관련해서 손 빼야지요. 그렇잖아요?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형벌적 범죄 행위, 이 범죄 행위가 무서워서, 논란이 무서워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논란이나 그런 행위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현재의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제재는……

○양문석 위원 잘못된 상식이에요.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상식의 기반은 잘못된 상식이에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조선일보 따위의 짜라시가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런 광고를 올리고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계엄을 찬양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언론중재위나 기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재 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양문석 위원 마지막 질문 합니다.

신문법에 보면요, 제28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3호에 보면요 해당 외국신문은

국현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외국신문요.

○양문석 위원 설마 또다시 대한민국에 내란 폭동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못하고 신문법은 외국신문을 적시하면서 국내신문에 대해서 등록취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외국신문에 대해서 등록취소를 이야기합니다. 정부 입법으로 신문법 제28조 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신문법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시도지사는 제9조 1항 신문등의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등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내용이 28조에 이야기했던 국현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하는 기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이 또한 문화부는 신문법을 통해서 서울시청에 이 신문은 등록취소해 달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화부의 입장으로 서울시청에 조선일보 등록취소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이것은.

○양문석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신문을 구성하는 것은 기사와 논평과 광고, 공자가 다 신문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문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취소도 신문법 관할 부처인 문화부가 서울시청에 요청해서 내란 폭동을 선동한 내용을 게재한 범죄집단 조선일보의 등록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광고 낸 것을 이유로……

○양문석 위원 내란 선동 행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광고 자체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 봐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재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장관님, 오늘 2시에 업무보고하신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대행께 업무보고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최상목 대행의 공식 직함이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어제 저희가 내란 사태와 그리고 무안 항공기 참사와 관련되어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최상목 대행이 경제부총리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께서 최상목 대행이 정말로 자기가 대통령인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지는 국민들의 질타가 무서워서 참석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시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문체 위원들이 강력하게 최상목 대행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전달 드린다라고 장관께서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지금 한남동에서 우리들의 아이들, 우리들의 젊은 친구들이 경호원과 경찰의 제복을 받고 있고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발부된 체포영장이 분명히 준엄한 법의 심판 집행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집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유혈 사태 내지는 충돌에 대해서 본인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또 본인의 경호실 직원들이 영장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 지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정말로 공무원과 시민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공자님 말씀도 아니고, ‘국민들은 안전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게 잘못된 지휘로 인해서 공무원들을 굉장히 혼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호실 직원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 유배당해 있는, 유폐돼 있는 그리고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을 위해서 경호실 직원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기현 위원 또한 내란 상설특검이 이미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대통령권한대행께서는 바로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째 전혀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위법사항입니다.

마은혁 현법재판관 문제는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장관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문체 위원들께서 장관의 입을 통해서 대행께…… 어제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대행이 참석하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가 전달 못 했던 내용 꼭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유산청장님, 지난 겨울 제가 산양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관련해서 1년간 유산청과 그리고 환경부, 해당 지자체들이 업무 협의를 통해서 많은 개선책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한번 PPT 띠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산양 이동을 위해서 ASF 울타리 개방을 했습니다.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개방이 돼 있지요. 그런데 저기 지금 개방을 해 놓은 자리에 한남동에서 경호원들이 쳐 놓았다고 하는 저 철책이 저렇게 쳐져 있어요. 누가 설치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정확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군부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이기현 위원** 군하고 협의 안 하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쪽에.

○**이기현 위원** 지금 저렇게 철책으로 막혀 있는 개방구간이 몇 개나 됩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관군의 협의체는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기현 위원** 그런데 장관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국감 때 또 예산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고 청장님께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정말로 대응책을 빨리 마련하시겠다고 해서 예산도 저희들이 태워 드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런데 장관님, 지금 저렇게 개방 효과가 전혀 없이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청장님께서 전혀 모르시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몇 개가 저렇게 막혀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개방의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량의 폭설이 안 와서 그렇지 폭설이 또 내리는 1월 중순 이후가 되면 작년에 일어났던 것처럼 산양 개체 수의 절반이 폐사되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저런 곳이 몇 곳인지도 확인을 못 하고 계신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담당자들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저게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점으로 찍혀 있는 부분들이 작은 원들이고요 지난번에 폐사체들이 집단으로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철원·양구·인제·고성 구간인데 가장 많은 곳은 여기서 보면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이쪽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미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이기현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화천, 양구 그리고 고성의 일부 구간, 민통선 보호구역 내에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역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라면 이 지역 전체를 연결해서 벨트를 만들어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천연보호구역은 자연유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저희들도 물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올해 어쨌든 산양 폐사를 막는 게 저희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민관군 협동으로 저희가 TF팀 구성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추후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시지요.

2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명승 등 자연유산을 확대하는 게 유산청의 기본 방향입니다. 맞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저는 이렇게 유산청의 기본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번에 과감하게 천연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이곳에 만약에 민간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산업시설이 있다고 하면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이미 민간인 통제구역 안입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천연보호구역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유산청의 기본적인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의 정책과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한번 다시 자연유산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 안건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국감 때도 지적하고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 때 잠깐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올해는 아시다시피 산양은 폐사가 또 개체 수로 나올 테니까요, 그 결과를 보시고 저희가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산양의 폐사가 적극적으로 방어가 됐는지 그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유인촌 장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계속해서 여론에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주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요, 아무래도.

○**임오경 위원** 동의하신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 이유로 했다는 것은 좀……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앉아서 질의하는 국회의원님들의 질의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참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장관님은 임명직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다 선출직으로…… 그 힘든 과도기 다 거쳐서 경쟁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현 정부 발목을 잡아서 불법계엄 유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는 아직 그 자세한, 아주 정확한 그런 뜻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장관님에게 묻는 거예요. 장관님이 지금 두 번의 연임을 하셔서 그 장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 경험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장관님이 보실 때 민주당이 현 정부 발목 잡아서 이 불법 계엄을 유발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장관님은 존중을 받기 위해서 상대를 먼저 존중하십니까, 존중하기 전에 상대가 나를 존중해 주면 존중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상대를 존중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게 기본이지요. 내가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상대한테 존중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이란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국민을 존중할 줄 모르고 나라를 이해할 줄도 모르고 국회의원을, 국회를 존중하지 못해서 이러한 사달이 벌어졌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입법기관을 무시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켜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국회 시정연설 당일 날 아침에 불참 선언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관련돼서 연설이 있었습니다. 불참합니다. 아니, 거대 1야당 당대표와 영수회담 당연히 해서 싫든 좋든 언론에 비쳐서라도 손을 잡는 척이라도 하면서, 꼼수를 부려서라도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역할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이 모든 비상 계엄은 민주당이 했다? 탄핵 정당이다?

입법기관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탄핵입니다. 탄핵은 입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국회법을 무시하거나 헌법을 무시해서 탄핵을 하는 건 아닙니다. 탄핵이 통과되게 되면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무정지는 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헌법재판소……

○임오경 위원 현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법기관에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탄핵 정당이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고 부정선거로 해서 당선됐다……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님들 오늘 참석하지 않았지만 왜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막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대통령이 자기의 역할을 못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누가 어찌한 역할을 해 줘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저는 국무위원들이 각 부처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일을 못 했습니까? 관광 산업 저조한 게 민주당 책임입니까?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난 1년간 저도 정말 주말도 없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혼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책임이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것을 다 민주당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요.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계시는 문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좀 안타까운 거지요, 이런 일이 생긴 것이. 그것이 어찌다 민주당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오경 위원** 오히려 저는 22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진짜 문체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는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전 20대, 21대 다 봤습니다. 더 발목 잡은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22대 들어서서부터는 우리 문체 위원님들 오히려 더 소통하면서 해 달라고 더 요청했어요. 하지만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을 더 꾀를 거꾸로 속게 했던 것은 행정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있어서 장관님께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관님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좋아진 게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랑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문체부 총 리더로서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어느 부분이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랑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느 부분이 꼭 잘되고 있다, 그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거는 짧은 시간 안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올해, 내년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다 생각하는데 현재 사태가 이렇게 돼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21대, 22대 이어서 제가 문체위 위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현장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그 역할이라고 보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보완해 줄까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계속해서 패러다임에 의해서 문화·예술·스포츠가 바뀌고 있으니, 관광도 변하고 있으니 이거에 걸맞춰서 새로운 사업을 연구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22대에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3년 동안 자랑 할 수 있는 건 저는 한 부분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기 우리 문체부 공무원들 계시지만, 피감기관장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불법 계엄을 뒤로 하고 나서라도 우리 상임위만큼은 그래도 현장을 위해서 제대로 일했다라고 한 말씀은 해 주셔야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자랑 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탓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발목 잡았다?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 못 하고 대통령 앞에 가면 작아지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한테 갑질이나 하는 그런 행동 그만하세요. 진짜 국민을 위하고 현장을 위하는 리더들이라면 진짜 리더에게, 제대로 된 리더에게 자기 소신은 발언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장관님, 이 사진 무엇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여기 이승환 콘서트 써 있네요.

○임오경 위원 써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이건 이승환 콘서트가 아니라 이 염동설한에 거리로 쫓겨나서 이승환이 없는 이승환 콘서트를 구미 시민들이 진행한 모습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콘서트를 본 적 있으십니까?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김장호 구미시장의 일방적인 공연 대관 취소 사태에 대해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안타깝지요, 사실은. 물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대중문화는 순수예술이든 이런 부분은 잘 협의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콘서트 다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런 문제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아무래도.

○임오경 위원 그러면 문체부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임오경 위원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현재 아마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거나 뭘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임오경 위원 장관님,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하는 게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임오경 위원 언론에서 이런 게 비쳐졌을 때 당장에 현장을 가셔야지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승환이 없는 이러한 콘서트가 벌어지고 있을 때 오히려 장관님이 직접 그 현장에 가셔서 고개 숙이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해 주셔야 되는 게 장관님의 역할 아닙니까? 현장을 누비고 다니신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이분들이 재판으로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 그거는 법으로 재판으로 이어지는 거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문체부가 존속하고 있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임오경 위원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정병국 위원장님에게 한 말씀 문의할게요.

위원장님은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저는 그 현장에는 안 갔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정병국 예.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장관님, 저는 블랙리스트가 부활되지 않나 이런 염려를 좀 해

보고요.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차별받지 않을 국민의 권리 를 무참히 짓밟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블랙리스트 문제는 여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양쪽의 입장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을 잘 해 주겠지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창작자를 보호하는 게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지요.

○임오경 위원 저는 문체부의 수장이신 장관님에게 이게 명백한 헌법 위반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이게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는……

○임오경 위원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이를 전에 공연장 대관 취소를 한 것에 있어서 이거는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그 판단은 이제 법원에서 하겠지요.

○임오경 위원 아니, 저는 장관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을, 저는 창작자를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장관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게 헌법의 위반이냐 아니냐까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오경 위원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헌법을 여기다 보여 드린 거고요. 장관님의 개인 의견을 물은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 입장은 창작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습니다. 문체부의 수장으로서 보호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문의를 했더니, 그런 문체부의 대응조치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연장 지도감독 권한이 자자체에 위임돼 별도의 대응조치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문체부가 할 일은 공연의 자유를 보장하고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체부의 태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그것 뭐 한계가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런데 한계가 있지요.

○임오경 위원 공연법 제1조 내용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입니다.

구미시장은 공연법 제1조 위반을 했다라고 보는데 문체부 수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공연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아마 구미시장께서는 이 공연 자체도 자체지만 오히려 불상사가 생길 걸 우려해서 아마 취소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부분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더 있지요, 사실은. 그래서……

○임오경 위원 우리가 행정 절차에 의해서 법으로 처리할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문체부에서, 이 공연법에 위반된 것을 지금 장관님한테 질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이 문체부의 수장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해법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이 콘서트 하나를 보러 오기 위해서 관광객들의 티켓 비용부터 시작해서 교통비·숙박비, 재산적 피해가 초래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문화와 관광의 선순환 고리를 단절시키게 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건 지도감독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 5월에도 구미시에서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또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에 사전 행사로 9억 원의 케이팝 콘서트를 연다라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여기에 국비·도비·시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90억 원이라는 예산이. 요즘 응원봉을 흔들고 케이팝을 부르는 달라진 이 집회 문화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만약 케이팝 가수들도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서약서를 요구하면 장관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 것은 안 하도록 해야지요.

○임오경 위원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윤석열 내란의 선봉에 서서 지지하고 있는 이 김홍국 씨 정도는 돼야 자유롭게 콘서트를 열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지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건 아니지요? 90억이 들어가서 구미시에서 케이팝 콘서트를 연다라고 예산까지 다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을 다 삭감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그건 제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 은데요.

○임오경 위원 이게 국비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 문체부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요, 장관님.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 낸 김장호 구미시장,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예술인 권리 침해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지금 장관님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공연법 제1조도 위반했다라고 장관님도 지금 동의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들어가는 이 문체부의 지원 예산, 저는 모든 예산 삭감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그거 국제시합이고 그런데…… 하여간 좀 봐야 알겠네요.

○임오경 위원 국제대회를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로 개최를 하지만 케이팝 예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

○임오경 위원 정부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케이팝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구미 시장한테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미 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오경 위원 아니, 예산편성돼 있어도 장관의 권한으로 다 거둬들일 수 있는 거 아닙 니까? 불법을 저지른 시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 하여간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조계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 어제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이 나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뉴스에서 봤습니다.

○조계원 위원 무죄로 판결이 됐습니다. 잘못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판명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박정훈 대령과 같이 잘못된 명령에 정의롭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12·3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국무위원 중에 단 한 명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을 내란으로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유인촌 장관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장관님, 윤석열이 곧 국가입니까?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너무 과장된 말이고요.

○조계원 위원 그 말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조계원 위원 윤상현 의원이 했습니다. 윤석열은 짐이 곧 왕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윤석열의 편지를 읽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못 봤습니다.

○조계원 위원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관저 앞에 있는 태극기 부대를 향해서, 친일 극우 태극기 부대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윤석열은 아직도 자기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 왕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란의 자백서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는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질책하시고 그런 거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제 현재 입장에서 지금……

○조계원 위원 왜 역사의 방관자로 남으려고 하십니까? 아까 박수현 위원님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방관자도 더 나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위원님 입장하고 지금 현재의 제 입장은 또 많이 다르고요. 제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명쾌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계원 위원 자 그러면 가까운, 일단 지금 당장의 시급한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 경호처 직원들이 철조망을 치고 차벽을 치면서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그 집행하시는 분들과 또 지금 안에 계시는 대통령과 잘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는, 지금 아까 편지도 보셨지 않습니까? 내전을 독촉하고 있잖아요. 내란을, 내전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말 한마디 하면 아무런 희생 없이, 무력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직 최상목 대행은 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업무보고 가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문제 해결하십시오. 최상목 대행에게 ‘경호처에 공정한 법 집행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말 한마디 못하면서 무슨 특검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자기 마음

대로 헌법재판관을 임의적으로 두 명만 임명하고 한 명은 보류하고 이런 식의 월권적 행위를 한단 말입니까?

그 말씀 꼭 할 수 있겠지요? 장관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오늘 아까 전달해야 될 말 몇 가지가 있으니까요 가서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내전, 내란을 아직도 꿈꾸고 있습니다. 내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이 평화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요. 국민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예술인들이 작성한 문화예술인 검열일지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못 봤습니다.

○조계원 위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다음 화면도요.

다음 화면 또 있습니까?

저렇게 술한 검열의 일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음 화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화면 띄워 주시지요.

제3조 1항에는 ‘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같은 법 7조 1항에는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예술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아니, 지금 문화체육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거나 그런 거를 막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승환 콘서트 서약서 한번 띄워 주시지요.

저 서약서 내용 한번 보십시오. 저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런 서약서를 안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요.

○조계원 위원 지금 구미시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처사로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예매가 완료된, 전석이 매진된 구미 공연 콘서트를 취소시켰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했듯이 잘못된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시장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계원 위원 이게 어려운 결정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결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지요. 왜냐하면 예약도 다 돼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문제를 더 많이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계원 위원 안전 문제를 염두에 뒀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 거 같은데……

○조계원 위원 말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조계원 위원 저 유인촌 장관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싶지 않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우리 가수들 또는 예술인들, 그냥 이 국회에서도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게 원칙입니다, 원래. 무슨 표현을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조계원 위원 장관님,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명백하게 지금 문화기본법에 반하는 쳐사 아닙니까?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가요, 물론 저는 원래 올해 발표도 하려고 했던……

○조계원 위원 아니, 안전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물론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술 관련 저희 기관, 단체 다 문화부의 어떤 이런 관계, 아까 영진위 위원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장관이 임명하지 않도록, 모든 예술 관련 기관은 앞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 바꾸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예술활동준비지원금 사업 활동보고 이거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단순한 인턴의 실수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 부분은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마 여기에 관련된 직원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인턴으로 아마 5개월 일한 직원 같아요. 그런데 이미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갔다고 하는데, 아마 늦게 사태 파악을 하고 다시 취소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직원들의 교육은 물론해서 전체 모든 문체부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지침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재삼 당부하지만 이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장관이 아니라 대한

민국의 장관, 국민의 장관으로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예술인복지재단 직무대리 나와 주십시오.

복지재단 계시니까 2018년 5월 23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좀 의미 있는 날이지요? 블랙리스트 집행과 실행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한 날입니다, 2018년 5월 23일이. 통렬히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PPT 보시면 최근 예술활동준비지원금 사업에 선정되었던 다큐멘터리 감독이 결과보고서를 업로드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담당자였는데 정치의 성향이 담긴 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을 명령했습니다. 맞지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저희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코멘트를 달아 놨습니다.

○강유정 위원 맞지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예.

○강유정 위원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누구보다 보장해야 돼서 만들어진 게 예술인 권리보장법이고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 아닙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예, 맞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런데 이 8조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조항도 위배했고요. 10조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조항도 위배했고요. 11조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활동 개입 금지 조항도 모두 어긴 겁니다.

여기서 명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멘트가 남았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전재수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2만 명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요. 그 대상자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활동보고서를 받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거 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좀 질문시간이 짧으니까요 나중에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2만 건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출규정을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축제·행사·종교·봉사활동…… 미인정 사유와 혼동하여 문구를 기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치성향이 담긴 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를 작성했는데 인턴이 그러면 개인적인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 내지는 자신의 자의적인 발로에 의해서 이런 말을 적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그 말씀은 저희가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으시고요……

○강유정 위원 그건 그렇게 말한 적 없고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그러면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계약직 인턴이 자의적으로 ‘정치의 성향이 담긴 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문구를 작성했다는 게 이해가 되냐는 말씀이에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A 인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옆 그저께 1월 7일 날 인턴하고 통화를 시도했는데요 본인이 종교·봉사활동 미인정 사유와 혼동하고 착오 기재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강유정 위원** 제가 방금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봉사활동이랑 정치 성향이 담긴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가 혼동될 수 있는 문구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그래서 제가 인턴한테 여쭤봤습니다. ‘혼동할 수 있는 문제냐?’ 그랬더니 본인이 혼동해서 잘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강유정 위원**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저 역시 제가 다 살펴본 거예요. 인정범위와 유의사항 다 봐도 여기서 어떻게, 한글을 읽을 줄 아는 분이라면 정치성향이 담긴 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하고 유사한 문구가 전혀 없어요. 이게 변명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예술인복지재단 결국은 이게 검열 시비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저희 재단은 검열을 하지 않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요, 검열 시비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 질문은. 검열에 대한 충분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예술인복지재단은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서 예술인 신문고 운영하고 있지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예, 신문고……

○**강유정 위원** 말하자면 이승환 씨가 예술인 신문고에 정치적인 검열을 이유로 공연이 취소당한 상황에 대해서 신문고를 사용도 하고 이용도 하도록 만들어진 곳 아닙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예, 신문고 사이트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로 다시 올려라, 이거 활동보고서 참조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면 어떤 예술인이 그 기관을 신뢰하고 믿고 거기에 올리겠습니까?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수습하실지 좀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활동보고서 보완 내용에 대해서 인턴이 이제……

○**강유정 위원** 다 아는 내용 말씀하시지 말고요. 수습을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이미 그 해당 예술인은 예술활동지원금의 활동보고서 완료하셨고요. 완료하셨고, 그 당시에 저희 정규직원이 통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턴의 착오와 실수가 있었다고 사과드렸고요. 사과드린 거 해당 예술인이 인정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일대일 문의 게시판에도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 그 해당 예술인께서도 확인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강유정 위원** 재발방지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유인촌 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아세요, ‘K-공감’이라는? 제작해서 발행하고 발행자 이름에 장관님 이름이

쓰여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주로 뭐 다루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거기 아무래도 정부 정책을 주로 소개하는 그런 책이지요.

○강유정 위원 그리고 현안도 많이 다루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뭐 아무래도 그 편집자에 의해서 하여간…… 그렇지만 대부분은 정부 정책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유정 위원 이 책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달에 국정브리핑 12페이지에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새해 인사도 하고 있고 한데 탄핵 가결이나 혹은 계엄령 선포 같은 중대 사안을 왜 안 다뤘습니까? 이 책을 처음 보신 분은 왜 갑자기 최상목이라는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돼서 있는지 당황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새해니까 아마 권한대행으로서 그냥 인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유정 위원 왜 권한대행이 됐는지에 대한 이슈는, 현안은 왜 다루지 않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이게 정책지니까요, 사실은 그런 문제를 다루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지요.

○강유정 위원 그러면 과거 자료화면 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탄핵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이? 과거 ‘위클리 공감’이라는 책 제가 갖고 왔어요. 탄핵 단어들을 제가 캡처했더니 이렇게나 많습니다. 총 열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왜? 유인촌 장관께서 발행하는, 지금 ‘K-공감’으로 바꿨지만 기능이 똑같은 정책소개집 그리고 현안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을 여기에 왜, 자료로서 굉장히 귀중한데 왜 탄핵은 언급 안 했냐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는 이 ‘K-공감’ 만드는 편집에 관련돼서 의견을 내거나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저도 그냥 똑같이 받아 보는 입장으로만 봤는데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필요하면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렇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현재가 인용하기 전에도 수 차례 언급했어요.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 그 과거가 언제, 예전……

○강유정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메모하시면 됩니다. 2016년 12월 19일 발행편에는 열두 번 언급했고요 2017년 2월 20일 발행편에는 2회 그리고 3월 20일 발행편에는 11회나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탄핵 인용 전이에요. 왜냐하면 정책과, 그때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오다 보니까 읽는 분들에 대한 안내를 위해서라도 탄핵이라는 사실은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제가 판단하라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보면 784호에는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도 말했고요. 그리고 노벨상 수상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탄핵 관련해서 하나하나 말했거든요, 계엄과 관련해서도. 그런데도 그 단어 뺐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편집이 있었다는 말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한 말에 계엄과 탄핵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뺏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이 온다’와 관련되어서는 과거 민주화 운동과 그 당시의 계엄 상황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아예 관련 기사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강 작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K-공감’에 그렇다는 거지요?

○강유정 위원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부분만 딱, ‘계엄, 탄핵’ 이런 부분들을 썩 빼놨어요. 그러나 앞으로 여전히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클리 공감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매주 나오는 거고. 현안에 대해서 다룰 거면 좀 공정하게 정직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한번 제가……

○강유정 위원 현재 제작 중인 ‘K-공감’부터…… 제가 다름이 아니라 여기 발행인 이름에 유인촌이 찍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무래도 그렇지요, 발행인은 제 이름으로.

○강유정 위원 나중에 역사적 평가를 받을 때 있었던 일을 없던 것처럼 탄핵이나 계엄이라는 말을 썩 뺏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장관님 모르셨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앞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정말 작가가 한 얘기를 빼고 편집을 한 건지 확인하고 다시……

○강유정 위원 확인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 장관님, 이번에는 말씀을 좀 하시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려운 질문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난 7일 포고령에 처단 대상자라고 표현됐던 분들 한 20여 분이 비상계엄의 위헌성 확인 협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거기 주로 내용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우리 협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다 이렇게 해서 협법소원 청구했는데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들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게 포고령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 위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민형배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 민형배 위원 참 너무 피하시네, 피하셔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제 역할도 아니고요.
- 민형배 위원 그 포고령이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거기 계엄 통제에 둔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더군다나 비상계엄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입니까, 아닙니까라고 제가 여쭙는데 그것도 못 하신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비상계엄법에는 다 나와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게.
-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포고령이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묻는데 그걸 못 하시겠다고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게 법에는 있는 거지요.
- 민형배 위원 아이고, 무슨 말씀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비상계엄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 민형배 위원 비상계엄법이 헌법보다 위입니까?
- 조계원 위원 어제 대정부질의에서도 위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시·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 조계원 위원 그걸 말씀하셔야지요.
- 민형배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따져 보려다가 지금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 문체부는 해외뉴스분석팀이 있는 정부부처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 민형배 위원 해외뉴스팀이 모니터링을 하면 사후처리를 보통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그러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민형배 위원 PPT 한번 보실까요?
- (영상자료를 보면)
- 해외 기사에 보면 ‘탄핵당한 대통령의 체포가 왜 이렇게 어렵냐’, ‘한국 정부와 대통령 경호처, 법치주의 짓밟다’, ‘체포에 저항하면서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한국 대통령’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돼요. 이런 보도를 보시면서, 제가 앞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이 여전히 내란 상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지요? 이것 정부에 전달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다 보냅니다.
- 민형배 위원 보고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민형배 위원 최상목 대행의 반응은 뭐니까, 이런 외신 보도에 대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제가 직접 그 반응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 민형배 위원 아이, 그래도 어디 보고를 하거나 그러면……
- 혹시 그러면 차관보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보고는 안 하고요, 우리 실무자들이 계속 전달하지요.

○**민형배 위원** 이진석 차관보님, 정부 다른 부처의 반응이나 이런 것 혹시 들으신 것 있으세요? 이쪽 언론 쪽 일을 하시니까.

○**문화체육관광부차관보 이진석** 특별히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차관보 이진석** 예.

○**민형배 위원** 이 업무를 하나 마나네요?

○**문화체육관광부차관보 이진석** 이런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내용이 취합되거나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대개는 실무선에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요.

○**민형배 위원** 아하,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늘 보내지요. 그러니까 부처로 다 보내니까……

○**민형배 위원** 그러면 왜…… 12·3 쿠데타 이후에 해외 언론에다가 서신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전 세계 언론인 및 서울 상주 외신 귀하’ 해 가지고 보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관광 때문에……

○**민형배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관광 때문에 보내셨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PPT 봐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게 원래 관광 때문에 보냈어요.

○**민형배 위원**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안전하다, 한국이.

○**민형배 위원** 아니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것 보시는 건 2016년에 문화부가 보냈던 거예요. ‘지난 촛불에서 보여 줬던 성숙한 시민의식과 평화적 모습에 외신들도 찬사’,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큰 에너지를 보셨을 것’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 조윤선 장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그때는 저런 걸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광장의 촛불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를 했어요. 이번에는 왜 안 하시지요, 이런 해외 언론에 대한 활동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떤……

○**민형배 위원** 문화부가 왜 이런 것을 안 하시냐고요,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외국에는 그래도 한국이 안전하다, 팬찮다, 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뭐 여행하기 쉽지 않다……

○**민형배 위원** 그런 것을 저기서는 촛불을 언급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촛불 대신 응원봉이었잖아요. 응원봉의 문화, 이게 정치를 지금 이끌고 있잖아요. 쿠데타를 막고 있잖아요. 내란을 빨리 끝내라고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되게 관

심거리고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부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해요, 정부대변인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뭐 해외에……

○민형배 위원 전에는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은 저게 무슨 언론사나 이런 데도 아니고 저희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이해기관에 보내는 건데 거기마다 그런…… 글쎄요,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그냥 안전한……

○민형배 위원 해외 언론의 반응도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실무자가 보고 말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해외로 발신하고 싶은 문화적 혹은 부처 소관 업무에 관한 메시지도 안 내보내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의 얘기를 써서 외국에까지 보내는 게 참……

○민형배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그래서 여쭤볼게요. 원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장관을 맡아 달라 그랬을 때 나는 이 정부하고 코드를 맞춰서 일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물론 그랬겠지요. 그런데 지금 희대의 사기꾼 내지는 폭군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통령이 될 때만 해도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고 법치를 앞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이게 곁으로 드러난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미. 장관님도 금방 보면 아시잖아요.

상황이 그때 원래 장관직을 수락했을 때, 이걸 맡아서 일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상황이 다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요.

○민형배 위원 바뀐 게 아니라 전혀 다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바뀐 거나 다른 거나 뭐……

○민형배 위원 당시에 대통령이 되고 그 후로 완전히 달라졌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이렇게 후회 안 하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그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편치가 않지요, 지금.

○민형배 위원 아주 편치 않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아주 편치가 않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어디 가서 홍보를 하거나 해외에 알리거나 이렇게 되지가 않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요.

○민형배 위원 그렇게 하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후회가 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빨리 관두시라는 얘기잖아요.

○민형배 위원 아니아니, 지금 현실 인식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여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차피 저한테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민형배 위원 당연하지요, 그거야, 이 정권이 오래 가지를 않을 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현재로서는 최대한 국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 시점까지는 정리를 하고 그렇게 돼야……

○민형배 위원 지금 당초하고 너무 달라져서, 아까 변했다고 그러시는데 너무 바뀌어서 곤혹스럽고 당황스럽고 후회스럽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대변인인데도 어디다 대고 말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쨌든 그러나……

○민형배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얼른 드릴게요.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 지난번에 분명히 원형 보존에 가깝도록, 고치지 않겠다, 크게 손대지 않겠다 그러셨는데 공모한 설계지침서 거기 보면 크게 바뀌었어요. 혹시 정신이 없어서 이것도 챙기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크게 바뀐 것보다는요 어차피 여민관이나 비서동들이 다 오래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형을 보존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민형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와대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음번 정권이 만약에 정부가 바뀐다면 그 대통령이 저 관저로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 집무실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갈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다음번에는 세종시로 가야지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로 가든 어찌든 저리로는 못 갈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세종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세종시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또 몰라요. 어떤 분은 다시 청와대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당장 세종시를 어떻게 가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 손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걸 크게 손대 놓고, 보니까 설계업체하고 설계지침서에 원형 보존을 목적으로 상의도 하고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지금 계속 의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실제로 많이 바뀌는 게 없어요. 내부에만 지금 오래된 그런 인테리어 부분이 바뀌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아니, 여민관하고 춘추관에 카페형 라운지나 도서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변경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가능하면 원형 보존에 가깝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크게 바꾸지 맙시다, 저게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니까’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지를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의 내부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는……

○민형배 위원 그런데 저한테 보낸 답변서를 보니까 설계 방향을 조속히 변경하겠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후속조치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바꾸지 마세요, 크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인테리어 공사하는 거라니까요, 인테리어.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민형배 위원 청와대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당장 누가 지금 저 집무실 공간으로 들어가겠어요? 아니, 친위 쿠데타를 해서 실패한 대통령이 쓰던 집무실에 누가 들어가겠냐고요? 안 들어가지요. 그러면 바로 몇 달 안 남았는데, 몇 달 이내에 그런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데 세종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략 예상할 수 있는 거지요.

어쨌든 그 공간을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아니면 최소한의 기능 보강만 하고 멈추셔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장관님 생각대로 안 될 거잖아요, 청와대재단이 생각했던 대로 안 될 거잖아요. 그것 멈추셔야 돼요. 오늘 멈추겠다고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뭐……

○민형배 위원 아니 계속하시려고요, 그 사업을? 앞으로 몇 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면 다 손 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일을.

(임오경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형배 위원 그런 일은 손 놓으셔도 돼요. 왜 지금 그것 하려고 그러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하여간 이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하시는 만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옛 도청 복원 사업, 불났잖아요? 그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올해 10월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건 예정대로 아마 올 9월이면 다 복원은 될 거고요.

○민형배 위원 이상 없이 마무리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다행히, 그게 산소용접하다가 불꽃이 튀어서 아마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20분 만에 바로 진화가 다 됐고……

○민형배 위원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 지금 중단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여기 선거운영위원의 자격을 면밀하게……

체육국장님 계세요?

2차관님, 이것 면밀하게 들여다봐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실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 선거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쟁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장관님, 문체부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정부대변인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오늘 업무보고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디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좀, 오늘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잘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목만 한번 메모하실 수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박수현 위원 첫 번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국회 존중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관해서입니다.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즉시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권한대행의 법률적 의무입니다. 그 임명을 즉시 하지 않거나 또 최상목 대행처럼 그중에 2명만을 선택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직권의 남용이고 위법한 행위이고 국회 무시 행위입니다.

더구나 그중에 또 1명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최 대행의 말은 궤변입니다. 이미 국회 뒷 3명은 여야 간 합의한 사항이고 이에 따라 민주당 2인, 국민의힘 1인이 추천되었고 적법하게 인사청문회까지 거쳤습니다.

국민의힘당이 자신들이 합의하고 추천한 후보의 인사청문회까지 거부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다시 하라는 최 대행의 요구는 비겁한 회피이고 탄핵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내란 응호 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또 두 번째, 국회 존중 태도에 관해서는 어제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뚝하면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야 합의를 주장하는 최상목 대행이 막상 합의된 일정을 무시하고 패싱한 것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12·3 내란 사태뿐만이 아니라 항공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와 여야 국회의원 202명의 찬성 의결로 실시한 일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비상 긴급현안질문에는 무단 불출석한 최 대행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여당과의 고위 당정협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이런 두 가지 사유로 저는 최상목 대행이 국회 존중 태도, 행정부의 기본 태도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란 진압의 책임자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즉시 협조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유혈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경찰에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 하는 짓입니다.

세 번째, 최상목 대행은 경제부총리입니다. 시장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라는 요구에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어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임원들이 최상목 대행에게 정치 불안의 장기화는 외국인 투자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

니다.

시장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내란의 조기 종식을 위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안 된다고 반대했다던 최 대행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모호한 처신으로 경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을 민주당이 탄핵해서 환율이 급등한 것이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담화를 발표하자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만으로도 환율이 급락했다는 것을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정치 불안의 장기화 가능성이 경제와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수 경제지인 포브스지가 비상계엄을 ‘GDP 살인자’라고 표현하면서 윤석열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의 대가를 5100만 국민이 나눠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즉시 내란 사태의 해소·진압으로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태균의 비공표 대선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직접 수시로 전달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는데 최상목 대행은 즉시 윤석열·김건희를 소환 조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해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 작년 11월 4일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통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소환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1월 7일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는데도 침묵으로만 일관했습니다.

명태균의 자택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다음 날인 11월 1일 관저에서 비상대권을 모의했습니다. 김영선 공천 관련 통화 녹음이 공개된 지 딱 열흘 만인 11월 9일에 계엄 선포 시 동원 가능한 군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논의했습니다. 더구나 11월 15일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는 명태균 발언 정확히 열흘 뒤인 11월 24일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이 윤석열·김건희와 2년 넘게 연락해 온 소위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힌 바로 다음 날 윤석열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비상계엄의 이유가 윤석열이 주장한 대로 민주당의 탄핵과 예산 삭감 탓이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로 불거진 각종 위법·불법 의혹을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윤석열 체포와 탄핵심판에 비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검찰에 철저히 소환조사할 것을 지시해야 합니다.

정부대변인으로서 장관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회의의 내용으로, 결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선거 참 말이 많은데요. 현재 허정무 후보가 제기한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때문에 법원에서 인용이 돼서 선거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계 일각에서 온라인투표 도입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당초 선거하려던 1월 8일이 전지훈련 시즌이라서 현장투표로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PPT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4 K리그 1·2부 등록팀 1월 전지훈련 현황입니다. 전체 25개 구단 중에 23개 구단이 투표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를 보면 선거인단 194명 중에 43명은 K리그 1·2부 선수와 지도자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 선거인단 중 22%입니다. 다수 선거인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때는 이때다 하고 현장투표 방식만을 대한축구협회에서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비밀투표권 보장이 어렵고 투표 가치의 평등을 훼손할 수 있다, 대부분 체육종목단체들이 온라인투표 안 한다 이렇게 지금 평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거 공정한 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현재 주어진 조건은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재원 위원 축구협회 규정은 또 온라인투표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회장선거관리규정 25조 4항에 현장투표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투표 허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투표 방식이, 그러면 온라인투표가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을 깨는 겁니까? 장관 생각을 물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된 선거라서 선관위 자체에서 조금 뭐 그런…… 대한체육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선거 방식이. 그래서 저희들도 온라인투표를 권하는 쪽인데, 아마 다음 번에나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의견을 주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번에도 하셔야지요, 원칙상 그렇다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예.

○김재원 위원 타 단체들에서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대한요트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스키협회, 다 온라인투표 합니다.

장관께서 선거 방식을 재검토해서 빨리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감독 선임 과정 문제, 각종 방만 운영, 대한축구협회에서 2024년에 문체부 집중감사를 받았는데도 지금 이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꼼수를 더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결과 나온 지 두 달도 안 됐어요. 또 편법 쓰는 게 보이니까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과 축구인들에게 공정선거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이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좀 강하게 권해 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어서 유산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사적으로 등재된 안동병산서원, KBS 드라마 촬영팀이 보물 만대루 등의 목조건물에 못질한 사실이 있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국가유산 촬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3 5호에 따라서 지자체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는데 안동시 허가사항 보면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별도 시설물 설치와 문화유산 훼손 행위를 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문화유산 훼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당연히 저희들 규정에 다 돼 있고 시군구에서도 그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촬영이 가능한 건은 시군구 지자체장이 허가하게 돼 있어서……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식적인 구체적인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못 박는 행위, 훼손이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훼손이지요.

○**김재원 위원** 그러면 접착제를 바르거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것 역시 훼손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걸 갖다가, 어쨌든 임시가 되든 뭐든 거기에다가, 문화유산에 직접 손을 대거나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예, 그런 것들 떼기 위해서 티슈, 물티슈, 알코올, 시녀 이런 것 사용해도 안 되겠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관계기관 감독하에서 가능한 일을 비전문가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최소 그 촬영 장소에 시군구의 관계자만 나가 있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김재원 위원** 그러나 지자체에서 다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표준 가이드라인 계획안 만들어서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재원 위원** 이어서 아까 장관과 얘기를 다 못 나눈 것 같은데 한예종 관련해서 독립 예술법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장관에게 압력을 넣는 게 도대체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압력을 넣는…… 저한테 압력을 넣어요?

○**김재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압력 넣는 사람 없는데요?

○**김재원 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보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저한테 압력을 넣는 사람들이 없어요.

○**김재원 위원** 한예종을 진보 성향으로 봐서 이참에 독립 예술기관화하여 예산을 끊고자 한다는 그런 제보들이 있습니다.

이 정부 갈라치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술은 개인의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왜 예술까지도 갈라치기를 하려고

합니까? 정부가 중립적이지 않으면,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극명하게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야당 전체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종국에는 내란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현안질의에서 장관께 심한 말씀 드린 것 개인적으로 많이 미안한 마음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총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에게는 헌법 위반이라고 한마디도 못 하면서 예술학교까지도 이념으로 갈라치면서 중립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에게, 너무 정권의 표 집결을 위한 앞잡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 원천적 갈라치기에 편승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장관께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제가 제보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소리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게 다 이익만을 추구하고 상업적으로 돌아가도 고유의 가치를 지키고 예술의 궁극을 추구하는 스웨덴 왕립음악원이나 아니면 영국 왕립음악대학 같은 그런 학교 하나쯤은 예산을 들여서 문체부에서 꼭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예종 반드시 존치시키시고 타 산하 예술학교들도 역시 예산으로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 계획으로는요 앞으로 이 예술기관들은 예산 신청을 국회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누가 압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김재원 위원 독립 예술기관으로 독립시키는 것 안 됩니다. 독립 예술법인은 혜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라에서 잘 챙겨 주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게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그거 다 학교설치법으로 법안도 내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김재원 위원 법안은 제가 만들 것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찬성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일단 예술기관은 전체적으로 다 이번에 독립시키려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게 꼭 정부에서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 상업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국립이 어디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김재원 위원 예, 반드시 문체부 산하에 두시고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왜 자꾸 문체부 산하에 두시라고 그래요. 독립을 시켜 달라……

○김재원 위원 독립 예술법인으로 전환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에 대해서 지금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학생들과 학교 교수들 전부가 다 그걸 원해요, 그렇게 해

달라고.

○김재원 위원 누가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성명서……

○김재원 위원 그렇게 얘기가 안 들어오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종의 평계로 들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학교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제가.

○김재원 위원 예, 학교랑 의논 잘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존치시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장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장관님, 지난 문체위 당시에 지교철 씨, KTV 프리랜서지요,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계엄 옹호 방송에 대해서 KTV의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현재 지금 시작은 못 했고요. 현재 체육회하고, 저희들이 감사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요 우선 그게 조금 정리가 돼야 KTV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다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이기현 위원 감사라는 게 물론 이제 역량이 초과되면 못 하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이 사실은 감사실에 직원도 많지도 않고요. 현재 조금 많이 하중이 걸려 있어서요, 왜냐하면 체육회도 있고 축구협회도 있고……

○이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 외 한예종도 걸려 있습니다, 감사가. 그래서 하여간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KTV는 특별하게 문체부에서, 지난 24년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들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계엄 생방송 관련돼서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이후에 계엄을 옹호했던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지교철 씨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 KTV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KTV의 이은우 원장님 좀 서 주실래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교철 씨하고 재계약했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업무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업무위탁계약?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원장이 해 왔던 행태를 보면 언론의 관심이 사그라지고 나면 또 지교철 씨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소리 없이 해고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재계약기간 동안에 지교철 씨 괴롭히는 것 아닐지에 대한 심각한 걱정이 있는데 그런 일 없겠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교철 씨 재계약 문제를 저희가 보면서 프리랜서 문제를 안 볼 수 없었습니다.

KTV의 정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저희 정직원을 공무원하고 공무직까지 친다고 하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이기현 위원** 계약직은요, 프리랜서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프리랜서는 1월 7일 자로 한 144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적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도 180명 정도 프리랜서로 계약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1월 7일 자로는 지금 144명입니다.

○**이기현 위원** 그 이전에 180명이었던 적 있습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뭐 그렇게까지 간 적이 있는데……

○**이기현 위원** 많이 줄었네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것은 어떤 특집 같은 게 있거나 이럴 때 그렇게 느는 경우가 있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교철 씨 말씀 들어 보니까 이분이 자막을 넣어 주는 그런 프리랜서로 있었는데 이번에 근무시간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대기시간 포함해서?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분이 하단 스크롤이라는 뉴스를 하시는 분인데,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이기현 위원** KTV가 지금 방송을 24시간 하고 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이기현 위원** 이분이 24시간 대기 상태였던 거예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뭐 그렇게 얘기를……

○**이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근무여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재택근무하라고 먼저 KTV 쪽에서도 제안하셨는데 아무리 재택근무한다고 그래도 사람이 24시간 대기하면서, 방송 보면서 자막방송에 대해서 원장의 지시, 본부장의 지시, 팀장의 지시가 언제 떨어진 걸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정말 전대미문의 고용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KTV가 지금 144명이라고 주장하시는데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노동자성에 대해서 이렇게 형편없는 노무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그 부분에 동감하고……

○**이기현 위원** 이분들은 분명히 노동자성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노동, 24시간 대기하는 노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어디 외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KTV의 노동관리시스템, 저는 전폭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자를 수밖에 없다고 위원들을 협박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산을 삭감하면 저희가 예산 다 살려 드렸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런 부당한 노동행위나 처우를 개악하는 이런 행위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주신 걸 보셔서 더욱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원장님 짧은 재임기간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고 국회에서 대응하는 여러 가지의 태도들로 봤을 때 원장님은 KTV를 개혁할 수 있는 책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문체 위원들의 생각이 대부분 다 동일하고요. 이번 과정에서 보여진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 원장님께서는 이번에, 임기가 남아 계시지만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유산청장님 지난번 국감 후속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재점검하면서 답변서를 요청했는데요.

PPT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후속조치 질의에 대한 유산청의 답변입니다.

지난번에 중원문화유산연구소 전 소장의 유물 불법 취득 의혹 관련돼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유산청 조사 내용은 답변도 안 하고 저렇게 보내온 겁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리고 유산청 유산사범정책자문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물었더니 답이 어떻게 왔냐 하면 ‘유산청 국가유산사범정책자문위원회는 형법 관련 변호사 및 법과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답변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국회에서, 부처에서 답변을 보낼 때, 이 자문위의 구성 현황을 요청했는데 ‘구성했다’ 이런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보완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저는 그래서 여기 유산청의 간부님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문체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감정 실린 답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현 위원** 아니,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구성 현황 내용을 달라고 그랬더니 구성했다……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아마 개인적인, 수사상황이라서 그걸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다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 문제 관련돼서는 유산정책과장 그리고 문화유산국장님이 주무 책임자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용천** 예.

○**이기현 위원** 저는, 국감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예산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작지 않은 유산청이 이런 태도의 답변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잘 알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나중에 구성 현황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질의했더니 김 땡땡, 모 땡땡 이렇게 땡땡 처리해서 가져오셨던데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유산청장님과 직원들의 국회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리고 참고로 아까 산양 출입개방구역이 마흔네 곳인데 그중에 세 곳을 군부대에서 철조망으로 막았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뢰매설지역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군부대에서 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면 청장님, 몇 곳이든지…… 지뢰매설지역이라고 했으면 저희들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개방했는데 다시 폐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 질의가 당연히 예상되는 질의였는데 왜 폐쇄됐는지 잘 모르시겠다고, 이유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국회에 대한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확인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 혹시 오마이뉴스 고발당한 것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오마이뉴스요?

○**임오경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오마이뉴스를……

○**임오경 위원**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왜 고발당한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가요?

○**임오경 위원** 아니아니요, 오마이뉴스가 대통령실에 고발당했습니다.

아유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모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요. 관저를 무단 촬영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관저, 용산으로 이전하라고 누가 부추겼습니까?

아니, 군사기지 안에서 촬영한 것도 아니고 버젓이 국민이 살고 있는 곳으로 졸속이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해서 졸속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참…… 대통령실에서 오마이뉴스를 고발했더라고요. 국가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랍니다.

아니, 국민에게 총을 들이댄 내란살인 수괴자를 우리가 왜 보호해야 되는 겁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임오경 위원** 아니, 국민에게 총을 들이댄 내란수괴, 살인자를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됩니까? 그 군사시설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곳에 관저로 들어

간 사람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도대체 어디서 살라는 겁니까?

이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 국가보안시설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촬영한 게 불법이라고 해서 고발을 당했어요. 이것 언론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관님은 어떠한 답변도 어려우시겠지요.

PT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 국민께 돌려준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해서 관광객 유치는커녕 관람객 수는 계속 줄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건희는 청와대 관저에다가 국악인들 불러다가 황제관람하고 황제차담회를 위해 종묘사직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 말도 안 되는 청와대 졸속이전으로 인한 용산 대통령실의 좁은 공간과 기형적 구조에 기인된 것 아닐까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제가 볼 때 이렇게 졸속이전, 졸속개방, 사적 사용의 최대 피해자는 장관님, 누구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 국가행사, 청와대에서 쓰는 것은 아마 영빈관하고 상춘재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람객하고는 동선이 겹치지도 않고 큰 피해는, 관람객을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요……

○임오경 위원 저희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그냥 방에 계시면, 그 안에 계시면, 관저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자유롭게 행보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청와대를 놔두고,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돌면서……

청와대를 나와야지만 살 수 있다? 임기를 마칠 수 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이 졸속이전으로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서 용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용산에서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언론사를 또 고발하지를 않나……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일까?

용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지요? 몇 날 며칠을 교통대란으로 시달리고, 삶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에 있어서, 제가 문체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문체부와 국가유산 청 공무원들 또 현장의 종사자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서…… 도대체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아니, 위에서 계속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이해 안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이해 하다 보니 이런 게 계속해서 들춰지면서 이것에 대한 질책 다 누구한테 받고 있어요? 저희도 질의하는, 이렇게 질책을 하는 저희 입장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계속해서 우리 문체부, 국가유산청 공무원들에게, 장관님들에게, 유산청장님에게, 차관들에게, 국장,과장, 실장들…… 마음이 아파요. 질의하는 국회의원으로서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이전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 불통 대통령이 되었고, 특히 국방부 건물에 대통령실을 차리면서 군부적 사고로 계엄을 모의하고 12·3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란수괴의 본거지가 된 용산 집무실은 차기 정부에서는 절대로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다시 청와대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 더 이상 들어가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 염려를 좀 하셔서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제가 당부드립니다. 진짜 용산이 아니라 다시 청와대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수괴자가 파면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 저도 모릅니다. 장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는 반드시 청와대로 다시 이전을 해야,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청와대에 예산 들어가는 일들이 없도록 장관님이 이 부분 검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효재 이사장님, 디지털 뉴스 리포트 재계약하시는 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하셨어요? 잘하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체 신뢰도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MBC가 12·3 계엄 사태 이후에도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MBC를 얘기하자라는 게 아니라 막상 현장에서 MBC가 내란수괴와 내란동조자들로부터 많은 펍박을 현재 받고 있는 부분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작년 8월에 진행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지상파 방송 중 MBC에게만 노골적으로 질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도 추잡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달 브리핑을 하면서 MBC 기자가 질문을 하자 ‘다른 언론사 하세요’, MBC를 노골적으로 무시했고요. 내란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 또한 12월 기자회견을 열면서 MBC와 JTBC의 취재를 노골적으로 불허했습니다. 얼마 전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란 사태 당시 11시간 동안 종적을 감추고 집에만 있었다는 MBC 보도가 왜곡 보도라면 신년 기자회견에서 MBC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장관님, 언론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못 봤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게 맞는 행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다 각자 자기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 거니까요 제가 뭐 이걸 전체를 맞다, 그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 내란 사태, 국민이 만들지 않았고 MBC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수괴자는 윤석열입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내란수괴 일당의 최우선 척결 및 통제 대상 중 하나가 언론이었어요. 불법 계엄이 끝났음에도 포고령에 명시된 언론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내란동조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계엄, 내란을 동조하고 생중계한 KTV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급부상되어서 판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KTV는 내란동조자로 지금 판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관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KTV 감사 바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정리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피해자는 국민과 또 우리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종사자들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기관장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진짜 노고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오는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무차별하게, 질의답변하는 데 있어서 참 힘든 과도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체 위원으로서 진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우리 문체위 상임위에서는 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질의답변 속에서 진짜 문화예술이, 진짜 대한민국 K-컬처가 전 세계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유산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유독 KBS에서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임오경 위원 12곳의 못질부터 시작해서 유독 KBS만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유산청에서는 촬영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이번 상황은 저희가 아주 엄중하게 지금 안동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안동시를 비롯해 저희하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상을 청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감시 인력을 저희가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시 인력도 누구 때문에 지금 늘려야 됩니까? 이 예산 또한 저희가 낭비 한다라는 걸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유산청에서는 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손해배상 청구도 하시고, 또한 KBS에게는 더 이상 저희가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촬영 금지를 통해서라도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마침 오늘 아마 안동시하고 KBS, 저희 유산청하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또 마지막으로 장관님께, 장관님, 진짜 어렵게 연임하셔서 지금 수장으로서 계시는데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무위원들은 몰라도 저는 장관님은 충분히, 장관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란수괴자, 더 이상 동조하지 마시고 바른말 하시고.

이 기간을 저희가 빨리 끝내야지만 대한민국이 살고 저희 국민들, 현장의 종사자들 살 수 있습니다. 경제, 민생 살리는 것은 진짜 앞장서서 발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유산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마곡사의 오층석탑, 1984년부터 보물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국보로 승격됐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국보로 승격이 됐습니다.

○**박수현 위원** 언제 됐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계고기간을 한 달 정도 가졌고요. 두 달 가까이 있다가 최근 바로 며칠 전에 승격이 완료됐습니다.

○**박수현 위원** 지금 국가유산청이—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입니다—마곡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오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9일 지정·고시했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맞습니다.

○**박수현 위원** 이 과정에서 우리 유산청 가족들이 기울여 준 노력에 대해서 깊은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마곡사 오층석탑은 고려 후기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 유행한 백제계 석탑 양식을 취한 전형적인 석탑으로 2층 탑신에 조각된 사방불의 세부 표현기법 등에서 고려 후기, 14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풍마동이라 불리는 길이 1.8m의 금동보탑을 옥개석 위에 올린 우리나라 석탑에서는 유일한, 아주 독특한 형태로 탑 위의 탑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지요.

금동보탑은 중국 원나라에서 유행한 라마식 불탑의 양식을 재현하고 있고 제작기법이 정교하고 기술적·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당시 불교문화의 국제적인 교류 양상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세계유산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산청도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 이렇게 중요한 가치, 문화적 가치를 그냥 그렇게 행정 절차로 승격만 해 놓고 있는 것, 뭐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공주시와 협의를 해서 승격 자체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문화적 가치를 아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잘 세워 주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와 보존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보 대책, 관리·보존 대책 이 문제를 잘 협의하셔서 본 의원실에도 함께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위원님, 마곡사는 그 외에도 다른 또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이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요. 국보도 아마 하나 더 승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또, 문화유산 지정된 그 산사에 마곡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임오경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최웅천 국가유산청장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 및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증인 명단**

증인(1인)

성명	직책	신문요지	출석일	비고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비서관	계엄 관련 방송편집업무에 대한 질의	2021. 1. 21.(화)	

**○출석 위원(10인)**

강유정 김윤덕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전재수 조계원

**○첨가 위원(1인)**

정연욱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전문위원 전완희

입법심의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제1차관 융호성

제2차관 장미란

차관보 이진석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최보근

종무실장 정용욱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장관정책보좌관 김기동

감사관 최현준

정책기획관 이정미

문화정책관 이해돈

예술정책관 신은향

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소통정책관 김도형

소통지원관 이준호  
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저작권국장 정향미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체육협력관 최성희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대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이은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직무대리 정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리 서영충  
국가유산청  
청장 최응천  
차장직무대리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임영아  
문화유산국장 이종희  
역사유적정책관직무대리 김명준  
자연유산국장직무대리 여성희  
무형유산국장 윤순호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1)

12월 20일 회부됨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9)

12월 23일 회부됨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3.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3.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3.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0)

이상 3건 12월 24일 회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4.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3)

12월 26일 회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7)

12월 27일 회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0)

12월 30일 회부됨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4. 12. 31.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

이상 2건 2025년 1월 2일 회부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1)

1월 3일 회부됨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0)

이상 2건 1월 6일 회부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4)

1월 7일 회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5)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0)

이상 5건 1월 8일 회부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8)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9)

이상 2건 1월 9일 회부됨

## ○관련의안 회부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2. 20.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4)

12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2. 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20)

12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1)

2025년 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0호	2024. 11. 7.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86호	2024. 11. 5.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569호	2024. 11. 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986호	2024. 11. 5.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69호	2024. 11. 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3호	2024. 11. 2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71호	2024. 11. 12.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572호	2024. 11. 12.	문화체육관광부
10·27법 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89호	2024. 11. 12.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4호	2024. 12. 2.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89호	2024. 12. 2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142호	2024. 12. 3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78호	2024. 12. 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76호	2025. 1.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71호	2024. 10. 29.	국가유산청